

반모음 y의 음절 구조적 지위와 음절화에 의한 방언분화

이 상 신*

1. 서론

음절은 보편적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단위에 속한다. 예를 들어 두 음절 이상으로 된 단어를, 음절의 위치를 역순으로 배열하여 말하는 놀이나 발화 실수(spoonerism) 등을 통해서 음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음절에 대한 인식은 『훈민정음』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훈민정음』 제자해의 “초성은 발동의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요, 종성에는 그치고 정해지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다. 중성은 초성이 생겨남을 받아 종성의 이룸을 이 어주니 사람이 하는 일이다.”(初聲有發動之義 天之事也 終聲有止定之義 地之事也 中聲承初之生 接終之成 人之事也)라는 언급이나 초·중·종성해 등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의 초·중·종성해와 합자해 등에 근거해 볼 때, 훈민정음을 탄생시킨 15세기의 음운이론은 음절 중심의 음운이론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우리의 음절에 대한 관심은 그 역사가 길다. 그러나 현대국어 음운론에 있어서 음절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으니 음소나 변별적 자질 중심의 이론에서 그 지위가 확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음절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음절에 관심을 가

* 세명대 강사

지기 시작한 것은 구미이론의 영향과 국어음운론자들의 반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강창석 1990:113).

이 글은, 음절구조에 있어서 반모음 y의 지위와 모음(V) 사이에 반모음 y가 개재되어 있는 VyV 연쇄의 통시적 변화 양상, 특히 oya 연쇄의 통시적 변화 양상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의를 통해 필자는 방언분화의 한 기제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는 문헌자료의 어형과 현대국어의 방언형을 관찰하여 그 변화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우선 II장에서 국어의 음절구조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II.1.) 음절구조에서 반모음 y가 차지하는 지위에 대해서 알아본 뒤(II.2.), III장에서 ‘췌기’(櫻)(III.1.)와 ‘되.’의 부사형 활용형(III.2.)의 통시적 변화 양상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II. 반모음 y의 음절 구조적 지위

1. 국어의 음절구조

현대국어의 음절은 하나의 음소만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최대 네 개까지의 음소로 분석될 수 있다.

- (1)¹⁾ ㄱ. 음소 하나: 모음(아, 오 등)
 ㄴ. 음소 둘: 자음+모음(가, 고 등)

1) 여기서 음절은 자음, 모음, 반모음을 그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는데 모음은 소위 핵모음을, 반모음은 y나 w 등의 이른바 글라이드(glide)를 가리킨다. 그런데 반모음과 글라이드라는 용어는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흔히 이중모음을 모음과 글라이드의 결합 정도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글라이드는 음성학적 용어임에 주의해야 한다. 글라이드의 국어 번역어로 활음(滑音)을 쓰는 것도 글라이드라는 용어의 음성학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이중모음은 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음운론적으로 정확한 서술이라고 생각된다. 반모음과 글라이드 외에 접근음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세 용어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혁화(2002:342-343)을 참조.

모음+자음(악, 옥 등)

반모음+모음(야, 요 등)

모음+반모음(의)

ㄷ. 음소 셋: 자음+모음+자음(각, 곡 등)

자음+반모음+모음(겨, 교 등)

반모음+모음+자음(약, 육 등)

ㄹ. 음소 넷: 자음+반모음+모음+자음(형, 흥 등)

한 음절은 반드시 하나의 모음을 가지며 모음은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자립 음소이므로 국어의 음절은 모음에 비모음(=syllabic)들이 결합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강창석 1984:204).

그러면 국어 음절의 내적 구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국어의 음절 구조에 대해서 그 구조가 평판적(三分枝的)이라는 견해도 있고 계층적(二分枝的)이라는 견해도 있다. 전자는 초·중·종성이 대등하게 음절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고, 후자는 초성과 중성 또는 중성과 종성이 먼저 묶여 한 단위를 이룬 후 남은 초성이나 종성과 결합하여 음절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계층적인 음절구조는 낮은 단계의 분지가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 좌분지 음절구조와 우분지 음절구조로 나눌 수 있다. 국어의 음절구조가 좌분지 구조나 우분지 구조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의성의태어에 나타나는 동음반복에서 ‘후다닥, 두둥실’ 같은 예는 초성과 중성의 결합(‘후다닥’의 ‘다’, ‘두둥실’의 ‘두’)이 한 단위로 행동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울퉁불퉁, 웅기종기’ 같은 예는 중성과 종성의 결합(‘울퉁불퉁’의 ‘울’, ‘웅기종기’의 ‘웅’)이 한 단위로 행동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의 음절구조는 이 둘 중 어느 한쪽이라기보다는 평판적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배주채 1996:80-81).²⁾

2) 음절구조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그 근거는 강창석(1990:115)와 김주필(1999:49-50)을 참조. 한편, 강창석(1990:115-116)에서는 “(우분지 구조는 중성에) 종성이 초성보다 더 밀접하고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음절이 절강음으로 시작되어 점강음으로 끝나는 발음단위라고 할 때, 초성은 점강음이고 종성

본고는 좌분지 구조와 우분지 구조의 구분 문제보다는 중성의 한 구성성분이라고 상정되어 온 반모음의 지위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반모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중성의 한 성분임을 전제로 하는 용어라 볼 수도 있지만 과연 반모음이 중성의 한 성분인지 아니면 초성이나 종성의 한 성분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현대국어의 경우, 하향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³⁾ 반모음 y를 종성의 한 성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음절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 (2)⁴⁾ ㄱ. 반모음이 중성의 일부분인 경우: [자음][반모음+모음][자음]
 ㄴ. 반모음이 초성의 일부분인 경우: [자음+반모음][모음][자음]

(2ㄱ)의 구조를 지지하는 증거로는 우선 현대국어에서는 어두 자음군이 제약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세국어 혹은 중세국어 이전에는 초성에 자음군이 허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초성에 자음군이 올 수 없으므로 반모음을 초성의 한 구성성분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음으로, 모음축약(일부방언에서, '기-(備)+-어→겨:→게:'에서 '겨:→게:' 등의 예)의 경우, 축약의 대상인 반모음과 모음을 중성의 두 구성성분으로 보는 것이 초성의 한 구성성분과 중성의 한 구성성분으로 보는 것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 점이 (2ㄱ) 구조를 지지하는 다른 증거가 된다. (2ㄴ)의 구조

은 중성과 함께 점약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음절구조의 의미를 음미하고 있다.

- 3) 하향 이중모음 '의'는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의'가 하향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지역과 경우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이 한 이유가 되고 국어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모음화 등으로 인한 하향 이중모음의 소멸에서 '의'가 예외적인 존재라는 점, '의'는 음운론적인 강도가 가장 약한 모음이어서 반모음을 거느릴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하고, 또 '의'를 반모음으로 이해하여 '의'를 '이'계 상향 이중모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다른 이유가 된다.
- 4) 엄밀하게 말해서, 국어의 음절을 평판적으로 볼 때와 계층적으로 볼 때를, 또 계층적으로 본다면 좌분지 구조로 볼 때와 우분지 구조로 볼 때를 나누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하지만 일단 배주채(1996:80-81)에 따라 국어의 음절구조를 평판적(삼분지적)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를 지지하는 증거로는 모음층들의 회피를 위해 반모음이 삽입되는 경우, 그 반모음은 중성의 모음적인 성격보다는 충돌하는 ‘모음성’의 연쇄를 끊는 ‘자음성’을 가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반모음을 초성의 한 구성성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⁵⁾

필자는 (27)의 구조를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는 초성이 될 수 있는 자음은 중성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자음은 초성과 중성 모두에 자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반모음이 초성의 한 구성성분이라면 그 반모음은 중성의 구성성분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대국어에는 하향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음절 안에서 모음 다음에 반모음이 올 수 없으므로 반모음이 중성의 한 구성성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요컨대 반모음이 초성의 한 구성성분이라면 이 반모음은 중성의 한 구성성분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대국어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27)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점은 중세국어에서 반모음 y가 차지하는 음절 구조적 지위를 상정하는 데 있어서 주장의 한 근거가 되겠는데 자세한 논의는 다음 II.2.에서 펴기로 한다.

2. 반모음 y의 음절 구조적 지위

이 장에서는 반모음 y의 음절 구조적 지위에 관해 알아보려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어의 음절구조에서 반모음 y가 차지하는 지위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 있어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중세국어의 경우 반모음이 초성의 한 구성성분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대국어의 경우 반모음은 중성의 한 구성성분으로만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반모음 y가 개입하는 음운현상에서 드러나는 y의 성격이 중세국어와

5) 반모음의 음절 구조적 지위에 대한 논의들에 대해서는 신승용(1998:28-34)와 김주필(1999:55)를 참조. 신승용(1998)은 반모음음, 음절화 이전에는 모음과 함께 중성의 구성요소로, 음절화 이후에는 초성, 즉 음절초 구성요소로 보았다. 한편, 박종희(2001)은 핵음 가설의 입장에서 국어의 음소배열제약, 1 반모음화, 3 축약 현상을 근거로 하여 반모음 y를 중성의 구성요소라 주장하였다.

현대국어에서 다르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우선 중세국어의 반모음 y를 생각해보자. 중세국어에서는, 주지하듯이 상향 이중모음은 물론 하향 이중모음도 존재하고 있었다. 위의 II.1. 말미에서의 논의처럼, 하향 이중모음이 존재한다면 중성의 y가 아니라 초성의 y를 상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점이 초성의 한 구성성분으로서의 y를 상정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된다. 또 중세국어에서는 어두 자음군의 제약이 현대국어에서만큼 심하지 않았으므로 초성의 구성성분으로 자음과 반모음의 상정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다.⁶⁾ 이 점이 반모음 y를 초성의 한 구성성분으로 상정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현대국어에서의 모음축약과 같이 반모음과 모음이 중성으로 묶여 일어나는 음운현상의 예를 중세국어에서는 별로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우리의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⁷⁾

6) 어두 자음군과 이중모음의 결합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었던 것 같다. “후기 중세국어의 어두 자음군은 ‘ㄱ, ㅋ, ㆁ, ㆁ’를 제외한 이중모음들 앞에 분포하고 있다. 어두 자음군이 ‘ㄱ, ㅋ, ㆁ, ㆁ’와의 통합을 꺼리는 이유는 ‘ㄱ, ㅋ, ㆁ, ㆁ’의 내부 구성 요소 중 선행하는 C의 glide 요소와 어두 자음군들의 통합이 CCC의 구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김남미 1997:54) “(중세국어에서) 어두 자음군을 가진 음절구조는 CCV(G)가 보편적이다. …… 어두 자음군이 초성인 경우에는 단모음이거나 하강 이중모음의 연결이 가장 자연스럽다.”(곽충구 1997:407-408) “중세국어 시기에 형태소 내부에서는 어두 자음군과 어간말 자음군이 활음과 결합할 때 일정한 제약을 가진다. (‘ㄴ시’를 제외하면) 어두 자음군의 경우에는 활음이 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또한 어간말 자음군의 경우에는 활음이 선행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 흥미로운 것은 어두 자음군이 하향 이중모음과는 자유롭게 결합하며 어간말 자음군도 상향 이중모음과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이진호 2002:119) 이런 지적들을 통해 중세국어의 반모음은 초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음절 초에 두 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 어두 자음군 뒤에서는 반모음이 올 수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7) 성조의 관점에서는 본고의 논의가 재고되어야 할지 모른다. 예컨대 성조가 평자인 ‘부터(佛)의 주격형은 平上의 ‘부테’로서 ‘부터’의 ‘ㄷ’와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테’는 상성으로 실현되는데 이는 현대국어의 모음축약처럼 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성조의 변동이 일어난 것이므로 모음과 반모음이 중성으로 묶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반모음 y가 관여하고 있는 음운현상에는 이후에 논의할 ㄱ 유성후음화 외에도 모음, 반모음 y, ㄹ 뒤의 매개모음 ㅛ/으 탈락과 ㅣ 반모음화 등이 있는데 전자는 모음, 반모음 y, ㄹ 뒤에서 탈락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와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용언의 활용에서

또, 중세국어의 특징적인 음운현상으로 ㄱ 유성후음화(k → ŋ / ll, y/#_)가 있는데 이는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앞 형태소 말음이 ㄹ이나 반모음 y일 경우 뒤 형태소의 ㄱ이 ㅇ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3)⁸⁾

앞 형태소의 말음 변화의 양상	ㄹ(알-知)	y(ㄷ외-化)
-거 → -어	알어니와(금강 序:6)	ㄷ외어늘(월곡 102)
-고 → -오	알오(석보 19:10)	ㄷ외오(석보 6:10)
-게 → -에	알에(석보 13:17)	ㄷ외에(월석 1:8)

위의 예들은 다른 표기형(*아러니와, *ㄷ외어늘 *ㄷ오어늘)이 문중되지 않는다. 이는 ‘-어’, ‘-오’, ‘-에’의 ㅇ이 무음가의 ㅇ이 아니라 음가를 가지고 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음가는 유성후음 [ŋ]이다(이기문 1977:15-29).

어미 ‘-으/으시’는 ㄹ 뒤에서 ‘으/으’가 탈락하지 않으며 체언의 곡용에서는 다른 조사들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으/으로’의 ‘으/으’는 탈락하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매 개모음 어미의 기저형을 복수로 설정하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 반모음화는 모음 |가 후행하는 다른 모음과 결합할 때 반모음 y로 되는 현상인데 이때의 |와 반모음 y가 [모음섬]이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 모음 음절의 초성이 ㄷ이나 ㄹ인 경우에 | 반모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송철의 1987:339-340)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이 현상들의 규칙성 혹은 규칙화 여부가 이 현상들의 경향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8) 본고에서 인용한 문헌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용가→『龍飛御天歌』(1447), 석보→『釋譜詳節』(1447), 월곡→『月印千江之曲』(1447), 월석→『月印釋譜』(1459), 능엄→『楞嚴經診解』(1462), 법화→『法華經診解』(1463), 금강→『金剛般若波羅密經診解』(1464), 사해→『四聲通解』(1517), 훈몽→『訓蒙字會』(1527), 첩해→『捷解新語』(1676), 역어→『譯語類解』(1690), 한청→『漢清文鑑』(1779), 물명→『物名攷』(19세기 초), 자류→『字類註釋』(1856), 한불→『韓佛字典』(1880), 정정인어→『訂正隣語大方』(1882), 국한→『國漢會語』(1895), 박→『판소리사설 박타령』(19세기 말), 춘→『판소리사설 춘향歌』(19세기 말), 법한→『법한즈면』(1901), 사→『試篇 露韓小辭典』(1904).

우리는 이 음운현상을 통해 ㄹ과 반모음 y가 음운변화의 동인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ㄹ과 반모음 y는 자연부류로 묶일 수 있고 이 둘은 음절구조에서 같은 지위, 즉 종성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ㄹ과 반모음 y가 모음성을 가져 중성의 한 구성성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ㄹ은 자음, 그리고 종성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반모음 y도 종성에 속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⁹⁾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반모음 y는 우선 종성의 한 구성성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¹⁰⁾

하지만 이런 점들이 중세국어에서 반모음 y를 초성의 한 구성성분으로 확정 짓는 것은 아니다. 단지 초성의 구성성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을 제시하는 것이지 중성의 구성성분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중세국어의 다른 현상들을 통해 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자.

중세국어에는 이현희(1991:325)가 이름 붙인 바 있는, 소위 y 유동현상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9) ㄱ 유성후음화는 모음 뒤의 접속 조사 '-과', 의문 첨사 '-고', 지칭 첨사 '-곳' 등에서도 일어났으므로 모음이 반모음 y, ㄹ과 함께 자연부류로 묶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 현상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이해는 반모음 y, ㄹ에 의한 ㄱ 유성후음화와 모음에 의한 ㄱ 유성후음화를 별개의 현상으로 보게 하므로(이승재 1996:71-75) 모음 뒤에서의 ㄱ 유성후음화가 본고의 논의를 어렵게 하지는 않는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음 뒤에서의 ㄱ 유성후음화는 반모음을 제외한 순수모음만이 그 환경이 되므로 본고의 논의를 지지한다고도 할 수 있다.

10) 어떤 음운변화의 동인 혹은 환경으로 기능하는 둘 이상의 음소를 자연부류로 묶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음소들에 동일한 음절 구조적 지위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특히 위 음운현상($k \rightarrow h / _ , y/\#$)은 ㄹ과 반모음 y가 공유하고 있는 음성적 성격에 의한 것이지 두 음소의 음절 구조적 지위가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4) 중세국어의 y 유동현상

구조	표기형	
	Vy\$yV	V\$yV
형태소 내부(蟻)	개야미(석보 6:36)	가야미(월곡 170)
용언과 어미의 결합(굴히-(擇)+-아)	굴히야(월곡 36)	굴하야(능엄 2:48)

표기 상 각 경우의 예에서 전자는 Vy\$yV의 구조를, 후자는 V\$yV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음절경계 표지). 이들 구조 안의 y는 김완진(1964=1971:53)에서 “어느 한 음절의 coda나 onset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두 음절 사이의 interlude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 바 있고, 즐고(1998:37-39)에서는 이 두 어형을, 음운론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공시적으로 공존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3)의 예를 통해 본 논의에서 반모음 y가 종성의 한 구성성분으로 간주될 수 있고 또 (4)의 V\$yV 표기형처럼 이 반모음이 앞 음절에는 없고 뒤 음절에만 있는 형태가 존재했다면 뒤 음절의 y도 초성의 한 구성성분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세국어에서는 위 (4)의 두 형태 Vy\$yV, V\$yV는 있으나 Vy\$yV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모음 사이에 하나 이상의 자음이 올 때 가능한 표기형의 양상과 평행적이다. 예를 들어 ‘굴히.’의 부사형 활용형은 ‘굴히야’, ‘굴하야’는 가능하지만 ‘굴히아’는 가능하지 않은데 이는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한 개일 때의 표기형, ‘먹.’의 부사형 활용형 ‘머거와, 모음 사이에 자음이 두 개일 때의 표기형, ‘앉.’의 부사형 활용형 ‘안자’와 같은 표기는 가능하나 ‘먹어’는 표기상으로는 음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과 평행적이다. 이렇게 모음 사이에 y가 개재해 있을 때 Vy\$yV 구조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 모음 사이에 자음이 개재해 있을 때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는 점도 중세국어의 반모음 y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음 사이의 자음이 그렇듯이, 모음 사이의 반모음 y도 뒤 음절의 초성 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로써 중세국어에서의 반모음 y의 음절 구조적 지위는 초성과 종성의 한 구성성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가설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로 반모음 y 는 중성의 구성성분은 아니었고 특히 모음 사이의 y 는 앞뒤 어느 음절에도 속하지 않아 음절 구조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정리하기로 한다.

그런데 국어는 근대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구개음화, 움라우트 등을 겪게 된다. 구개음화는 $|$ 나 y 앞에서 ㄷ 이 ㅈ 으로 변하는 현상이고, 움라우트는 $|$ 나 y 를 가진 음절이 선행음절의 후설모음을 전설모음화하는 현상이라고 하겠는데, 이들 변화에서 $|$ 나 y 가 변화의 동인으로서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운현상에 있어서 반모음과 핵모음이 동일한 부류로 행동한다는 것은 반모음과 핵모음이 보다 강하게 결합된 구성요소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김주필 1999:56)이라는 점에서 반모음은 초성이나 종성보다는 중성의 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어두 자음군에 대한 제약이 점점 심화되어 결국 현대국어에 와서는 초성에 하나의 자음만이 올 수 있는 제약과 하향 이중모음의 소멸 등이 가세하여 현대국어에서 반모음은 중성의 한 구성성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¹¹⁾

III. 반모음 y 의 음절화에 의한 방언 분화

1. 형태소 내부의 oya 연쇄의 변화 - ‘삐기’(楔)를 중심으로

상향 이중모음 $w\epsilon$ 는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일견 이 물음은 매우 간단해 보인다. 전설모음 ϵ 의 생성이 우리에게 상향 이중모음 $w\epsilon$ 를 가져다 준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라면 우리는 $w\epsilon$ 가 way로부터 변화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way에서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는 $w\epsilon$ 가 현대국어에서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way에 그 기원을 두

11) 본고에서는 반모음 y 에 대해서만 논의했는데 반모음을 대상으로 한 논의라면 반모음 w 도 함께 논의해야 옳을 것이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중세국어의 반모음 w 는 순경음 ㅍ 이 변화한 것으로서 자음적 성격이 강했다는 언급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활음이 자음적인지 아니면 모음적인지 하는 것은 분절음 층위의 논의로서 활음의 음절 구조적 지위와는 별개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y 와 w 는 음절 구조적 지위가 달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있는 we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괘(炬), 檝(櫓) 등). 다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we의 기원이 way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we의 기원이 될 만한 것 중의 하나로 oya를 가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절에서는 oya가 we로 발달해 가는 과정을 구명하기 위해 중세국어의 '쇠야기'(檝)를 중심으로 oya가 어떻게 we로 변화하였는지, 또 이러한 변화가 현재의 방언형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관점에서 uy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문헌에 나타나는 '썰기'의 어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5) | ㄱ. 중세국어: | 15세기 | 쇠야미(법화 序:21) |
| | | 16세기 | 쇠야기(사해 하:83, 훈몽 중:18, 26) |
| ㄴ. 근대국어: | 17세기 | 쇠야기(첩해 5:22) | |
| | | 쇠야기(역어 상:17) | |
| | 18세기 | 뵈야기(한청 12:5) | |
| | | 쏘야기(한청 13:30) | |
| | | 쇠악이(한청 14:50) | |
| | 19세기 | 쇠야기(물명 2:10) | |
| | | 쇠악이(자류 하:9) | |
| | | 쏘악이(SSO-YAK-I, 한불 425) | |
| | | 쇠악이(SSOI-AK-I, 한불 426) | |
| | | 쏘야기(국한 186) | |
| ㄷ. 현대국어: | 20세기 | swɛgi(사 44(곽충구(1991=1994:291)에서 인용)) | |

'썰기'의 중세국어형은 '쇠야미'와 '쇠야기'가 있었고¹²⁾ 『첩해신어』에는 '쇠

12)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쇠야기'의 후대형으로 보이는 형태만이 나타나는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에 의하면 '쇠야미'의 후대형으로 경상북도 고령의 'swE:mi'형이 유일하다.

아기'형이, 『역어유해』에는 '쇠야기'형이 있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국어에서는 '쇠야기'형과 '쇠야기'형이 공존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에는 어두 $\text{ba} \sim \text{ssa}$ 의 존재를 통해 어두 경음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보야기, 쏘야기'~'쇠악이'의 존재를 통해 소위 interlude적 성격을 지니고 y 유동현상을 보이는 y 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런 y 유동현상은 19세기 말까지도 계속되어 그때까지 하향 이중모음 oy 의 단모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³⁾ '쇠야미'형을 논외로 하면 우리는 여기서 현대국어 '췌기'의 고행으로 '쇠야기, 소야기, 쇠야기'의 세 어형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췌기'의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의 어형을 알아 보았다. '보야기'에서 보이는 경음은 이 글에서 중요하지 않으므로 논외로 하자. 그러면 '쇠야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위의 (5)에 제시된 19세기 말의 '췌애기', 20세기 초의 'swɛgi', 그리고 현대국어의 여러 방언형으로 변화했을까.

우선 움라우트에 의한 변화를 생각해 보자. '쇠야기'의 '아기'가 움라우트에 의해서 '애기'가 되고 앞에 있는 '쇠'의 oy 는 ö 나 we 가 된 뒤 ü 와 '애기'의 ɛ 가 결합하여 혹은 we 의 ɛ 와 '애기'의 ɛ 가 축약하여 '췌기'가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ɛ 의 장음성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처리방법은 현대국어 방언형에 어간말 i 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가 많다는 점, 즉 움라우트가 일어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합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oya 를 o 와 ya 로 나누어 변화를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는 oya 의 상태일 때는 o 가 그대로 있었지만 ya 가 ɛ 로 된 뒤에는 o 가 w 로 활음화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we 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러한 과정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3) y 유동현상과 단모음화의 관련성은 광충구(1980:87)에 지적되어 있다. "…… 표기사실을 검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단모음화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꺄', '꺈'가 /ay/, /əy/일 때는 off glide /y/가 후속음절의 모음과 연결될 수도 있어 그것이 표기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18세기) 후기의 문헌은 대체로 이러한 표기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보면 제1음절에서의 단모음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편(1987-1995)의 여러 방언형을 고려하여 논의해 보자.

‘썰기’의 방언형은 ‘보죽’, ‘보죽’ 등 어휘적으로 다른 방언형들을 제외하면 어간말 i의 존재에 따라 ‘s'wɛ:gi’형과 ‘s'wɛ:k’형, 그리고 단모음 여부에 따라 ‘s'wɛ’형, ‘s'ök’형, ‘s'üak’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어간말 i의 존재여부는 이 글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wɛ와 öa의 대립으로서 ‘썰(:)기’형과 ‘쇠악’형의 대립이 우리의 논의의 핵심이다. 방언형들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강원도 절반 정도와 경상도 대부분은 ‘보죽’형의 방언형이, 경상도의 월성, 영천, 청도와 중부지역은 ‘s'wɛ’형이, 서남방언지역 대부분은 i 없는 형태로서 단모음 ‘외’나 ‘위’를 가지고 있는 방언형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간말 i의 존재는 논외로 하고 ‘s'wɛ:k’과 ‘s'ök’, 그리고 ‘s'üak’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해보자.

앞에서도 시사한 바 있지만 반모음 y의 성격이 지금의 논의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interlude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모음 사이의 y가 후대로 오면서 하향 이중모음이 단모음화되면서 어떤 고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상황, 즉 비고정적이던 y가 앞뒤 어느 음절 혹은 양음절 모두에 정착하게 된, 명명컨대 ‘음절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음절화로, y가 어느 특정 음절의 구성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음절은 그 나름의 변화를 겪게 된다고 가정하면 반모음 y의 음절화 이후 음절화 양상에 따라 세 가지 다른 형태, 즉 y가 앞 음절에 붙었을 때, 뒤 음절에 붙었을 때, 그리고 양음절 모두에 붙었을 때의 세 가지 형태가 각각의 형태로 독립되어 쓰이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세 가지 형태로의 음절화가 오늘날의 방언형에 차이가 나게 된 원인 중의 하나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즉 oy\$α형과 o\$ya형, 그리고 oy\$ya가 각각의 형태대로 발전하면서 이것이 방언형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먼저 첫 번째 형태(oy\$α)에서 oy가 단모음 ö가 되어 오늘날의 서남방언의 ‘s'ök’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¹⁴⁾ 두 번째 형태(o\$ya)에서는 ya가 ε로

14) 한편, 김옥화(1994:76-78)은 고창 방언의 ‘쇠악’의 ö는 ‘쇠악’과 공존하는 ‘썰에기’의 we(wɛ는 이전 시기의 wɛ와 we가 합류한 것)가 축약된 것으로 보았다.

된 뒤 w(<o)와 결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형태소 내부의 o가 w로 바뀌게 된 사정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oya형태일 때의 o는 앞 음절에 속하고 a는 뒤 음절에 속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모음충돌을 막아주는 y가 있기 때문에 두 음절은 한 음절로 축약되거나 활음화가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그러므로 o도 w로 활음화되지 않고 독자적인 음절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ya가 ε로 변하자 o는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w로 활음화된 것이다.¹⁵⁾ 이러한 과정을 거쳐온 것이 's'wε:k'형이다. 여기서 장모음은 활음화에 따른 보상적 장모음화에 의한 것으로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형태(oy\$ya)에서 oy는 ö 혹은 wε가 되고 ya는 ε가 된 뒤 ö와 ε, wε와 ε가 wε로 축약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방언형에 대한 또 다른 설명방법이다. 전라도 곡성, 구례, 화순, 승주, 광양, 해남, 보성, 완도 등지에서 나타나는 's'üak'형에 대해서는 '되'의 부사형 활용형이 '뒤야'로 실현되는 전라도 남원의 방언형을 아래와 같이 분석한 이진호(2002:140-141)을 참고할 수 있는데 아래의 ㄱ., ㄴ.이 모두 약간의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뒤야'의 형성 과정은 ㄱ., ㄴ.과 비슷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고 한다.

- (6) ㄱ. toyya > tweya > twiya > tüya
 (oy)we) (에)이) (wi-단모음화)
 ㄴ. toyya > töya > tweya > twiya > tüya
 (oy-단모음화)(ö-이중모음화) (에)이) (wi-단모음화)

(6)을 참고하면 's'üak'형의 형성 과정은 아래와 같이 상정할 수 있다.

- (7) ㄱ. soyak > sweak > swiak > süak
 (oy)we) (에)이) (wi-단모음화)

15) 경상도 방언을 반영하는 『國漢會語』의 '쏘야기'(국한 186)와 '썰애기'(국한 186)가 ya)ε 변화를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이병근·정인호(1999:14-16)도 'ㅍ)'ㅅ)' 축약에 의해 '썰기'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썰지(송아지), 돼지, 개지(강아지), 매미, 개미, 썰미(수염)'에도 '썰기'와 동일한 형성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ㄴ. soyak > söak > sweak > swiak > süak
 (oy-단모음화) (ö-이중모음화) (예)이 (wi-단모음화)

그런데 위의 설명에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ya의 ε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이승녕(1940:93)에서 ‘야’와 ‘여’가 자음에 후행함을 회피하는 국어의 일반적인 경향을 지적하며, 일정한 자음이 앞에 올 때 ‘야’와 ‘여’ 이중모음은 ‘자생적 모음변이’를 수행하여 ‘여)예)에, 야)애)애와 같은 발달과정을 거쳐온 것이라 하였다. 또 김형규(1974:하141)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전설모음화의 결과로서 전라, 경상, 함경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에 의하면 전라남도과 충청남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ya에서 변한 ε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꽤기’의 방언형 분포를 말하면서 서남방언지역에서 ‘쇠약’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 지역이 대체로 ya가 ε로 변하지 않고 ‘쇠약’ 혹은 ‘쇠약’ 형태를 유지하는 지역으로서, 크게 보아 그 둘의 분포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oya 연쇄의 발달과정을 알아 보았다. 지금부터는 체계적인 관점에서 oya의 모음조화 쌍인 uya는 어떻게 발달했는지 알아보자. 여기서는 ‘수염’의 방언형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겠다.¹⁶⁾

김형규(1974:상74-75)에 의하면 ‘수염’의 방언형으로 다음과 같은 어형들이 있다. 방언형의 배열은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고 방언형 다음의 ‘(ʃ)’는 제1음절 ‘스’의 음성형이 ‘s’가 아니라 ‘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8) ㄱ. 쉬염: [경기] 연천, 강화, 김포, 양평, 광주, 화성, 이천, 평택, [강원] 양구, 화천, 횡성, 정선, 영월, [충북] 제천, 단양, [충남] 예산, [전북] 군산, 옥구, 완주, 진주, 고창, 정읍, [경북] 대구, 경산, [경남] 거창, 함양, [제주] 전부
 쉬염: [경기] 용인, 여주, 안성, [강원] 양구, [충북] 전부, [경북] 문경, 영덕

16) ‘수염’은 한자어이어서 앞의 ‘꽤기’와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쇠약’과 비교하여 음절수에서도 차이가 나므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지도 모른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 쉬옴: [강원] 인제, 홍천, 강릉, 명주, [경북] 영천
 쉬옴(ㄹ): [충남] 공주, 청양, [전북] 이리, 입실, 정읍, 순창, 남원,
 [전남] 장성, 담양, 광주, 광산, 영암, 나주, 화순, 여수, 고
 흥, 완도, [경북] 상주, 김천, 금릉, 고령, [경남] 거창, 합천,
 함안
 섬(ㄹ): [충남] 천원, 당진, 서산, 연기, 공주, 청양, [전북] 김제,
 진안, 남원, [전남] 장성, 담양
 섬(ㄹ): [강원] 삼척
 시옴(ㄹ): [전북] 장수, [전남] 영광, 함평, 영암,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진도, [경북] 금릉
 씨옴(ㄹ): [전남] 곡성, 구례, 순천, 광양, 여수, 고흥, 해남, [경남]
 고성
 씨옴지(ㄹ): [경남] 충무
- ㄴ.
- 수옴: [경기] 포천, 파주, 가평, [강원] 원주, 원성, [충남] 아산, 청
 양, 홍천, 보령, 서천, 부여, 논산, 대전, 대덕, 금산, [전남]
 구례, 목포, 무안, 화순, 순천, 여수, 고흥, [경북] 봉화, 영
 양, 선산, [경남] 하동
 수옴: [전남] 광양, [경북] 울진, [경남] 부산
 섬:: [경북] 울진
 섬:: [경남] 창원
- ㄷ.
- שמ:: [경북] 청송
 쇠:미: [강원] 속초, 양양, [경북] 안동, 경주, [경남] 울산
 שמ:자: [경북] 안동
 세(;)미: [경북] 안동, 영일, 포항, [경남] 밀양, 양산
 שמ:: [경남] 함안
 새:미: [경북] 영덕, 포항, 경주, [경남] 밀양, 울산, 울주, 김해, 동
 래, 부산
 שמ:지: [경북] 경주, [경남] 통영, 양산, 울산, 울주, 동래
 세:미: [경남] 진주, 진양, 마산
 섬:: [강원] 고성, [경북] 영주, 선산, 대구, 달성, 경주, 고령, [경
 남] 진주
 쉬(;)미: [경북] 의성, 군위, 칠곡, 청도, [경남] 밀양
 삼(ㄹ), 삼:지(ㄹ): [경북] 예천
 씨미(ㄹ): [경남] 사천
 섬(ㄹ): [경남] 진양

(87)의 방언형들은 '수옴'의 y가 제1음절로 음절화(uy\$ə)되었거나 1, 2음

절 모두로 음절화(uy\$yə)된 어형의 변화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도와 강원도의 어형들도 있지만 주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사용되는 어형들이다. '섬:(j)'과 '쌈:(j)'은 'j'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쉬엄'이나 '쉬엄' 등의 어형이 한 음절로 축약된 어형에서 전설성이 사라진 어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⁷⁾ (8ㄴ)의 방언형들은 '수염'의 y가 제2음절로 음절화(u\$yə)된 어형에서 그 발달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수염'형은 y가 탈락된 어형이고 '쉽:'형은 '수염'의 제1음절 모음이 활음화된 어형이다. (8ㄷ)의 방언형들은 (8ㄴ)의 방언형들로부터 그 발달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즉 'u\$yə'에서 뒤 음절의 yə가 축약하여 '에'가 된 후 앞 음절의 u가 w로 활음화한 결과가 (8ㄷ)의 방언형들인 것이다. 경상도 중부지역에서는 '쌈:'형이, 경상도 동해안 지역과 강원도에서는 '쉽:'형이 나타나는데 'ㄱ' 'ㄷ' 'ㄹ' 변화에 의한 '쌈:'형과 '쉽:'형은 대부분 경상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위의 세 형태는 앞서의 '꽤기'의 방언형을 설명할 때와 같이 음절화 양상에 따라 uy\$ə(uy\$ya), u\$yə로 음절화가 된 이후 변화한 방언형일 것으로 추측된다. (8ㄱ)은 uy\$ə형, (8ㄴ)은 u\$yə형, (8ㄷ)은 (8ㄴ)의 형들이 축약된 것 정도로 정리가 된다.¹⁸⁾

그러면 '꽤기'와 '수염'의 방언형들을 비교해 보자.

'꽤기'의 방언형 중 경상북도에서는 월성, 영천, 청도에서만 's'wE-'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만약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에서 '보죽'형이 아니라 '쇠야기'의 후대형이 나왔다면 's'wE-'형과 비슷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염'의 축약형이 나타나는 (8ㄷ) 지역과 '꽤기'의 's'wE-'형의 경상도는

17) 송철의(1995:280)에서는 '수염→쉽:→(섬:)'이 모음간에 활음이 개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음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하며 '쉬(休)+어가' '쉽:(→서)'로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음절 재조정에 의해 '쉬엄/suy\$əm'이라는 중간과정을 거쳐 활음화가 이루어진 듯하다고 했다.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에 의하면 전라북도 무주에 's'ö:m'이 보인다. 이는 서남방언에서 흔히 발견되는 웨 축약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웨 축약에 대해서는 이진호(2002:125-129) 참조. 그런데 웨 축약이라고 보면 '웨'의 기원과 관련하여 본고의 논의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데 본고는 'u\$ya)we:)>ö:'의 과정을 상정할 수밖에 없고 무주에서 'u\$ya)we:'가 가능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거의 일치하게 된다. 즉 oya가 we로 발달했다면 uyə는 we로 발달한 것이다. ‘꽤기’의 ‘s’ök’형과 ‘수염’의 (87) 방언형은 지역적인 분포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oya가 öa로 발달했다면 uyə는 üa로 발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활용형의 oya 연쇄의 변화 - ‘되-(化)’의 부사형 활용형을 중심으로

‘되-’ 어간은 중세국어에서 몇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드뵈’가 그 원형일 것으로 생각되며(‘드뵈니이다’(용가 98)), ‘드와-, 도야-, 되-’ 등의 어간도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 ‘되-’ 어간의 부사형 활용형은 위의 II.2.에서 언급한 y 유동현상을 보여준다. ‘되야와 ‘도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근대국어에서는 어간이 ‘되-’로 고정된 듯하며 그 활용형은 ‘되야, 되여’의 모습을 계속 가져 왔었는데 비교적 예외적이라 할 수 있지만 17세기부터는 ‘되어’형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필자가 본 문헌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돼’와 같은 활용형은 20세기 초의 문헌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 같다(이상신 1998:78).

- (9)¹⁹⁾ 가. 뒛소(tuésso, 법한 79)
 나. 뒛소(tuaisso, 법한 149)
 다. 뒛소(tuésso, 법한 183)

제1음절 모음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9가)은 한글표기는 ‘나’이지만 음성표기로는 ‘게’를 나타내고 있다. (9나)은 한글표기는 ‘나’이지만 음성표기로는 ‘내’를 나타내고 있고 (9다)은 한글표기는 ‘나’이지만 음성표기는 ‘게’를 나타

19) 아래 예들의 출처인 『법한조던』에서 음정은 확인할 수 없다. Pame(夜, 법한 215):Pame(栗, 법한 44), Nouné(眼, 법한 218):Nouné(靄, 법한 211), Pal(足, 법한 242):Pale(簾, 법한 316). 마지막의 음장 대립쌍만 e의 유무에서 다른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내고 있다. 『법한즈던』은 1901년, Charles Alévêque가 편찬한 것으로서 단모음 ö는 'eu'로 음성표기를 하였고 또 '되오'(teuho, 법한 195)라는 예도 있으므로²⁰⁾ 위의 '게'와 '내'는 주목에 값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자(轉字)의 방식을 택한 『법한즈던』의 편찬자는 문자화된 예를 찾기 어려운 '돼'를 표기하기 위해 고심하였을 것이고 그 흔적이 위 (9)의 다양한 표기들이다.

어간 '되'와 어미 '-아/어'가 통합한 활용형('되'+-아/어)의 현대국어 방언형은 크게 보아 '되아(되야)'와 '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서 보이고 후자는 약간의 변이형이 있는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²¹⁾

'돼'형은 통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세 국어의 '되야'는 y 유동현상이라 불릴 만한 모습으로, 음성적으로는 같은 가치를 지니는 '되야' 혹은 '도야'로 표기되었다. 이런 '되야'와 '도야'는 하향 이중모음이 단모음화되는 근대국어틀 거치며 몇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되야'와 '도야'에서 양음절적 성격을 가졌던 반모음 y가 'i'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로 인해 그 양음절적 성격을 잃고 앞 음절이나 뒤 음절에 고정되어 '되야', '도야', '되아'의 3개로 분화되는 것이다. 그런 뒤 '되야'와 '되아' 형은 현재의 '되아(되야)'형으로 이어지고²²⁾ '도야'형은 1음절 '오' 모음의 반모음화와 2음절 'ㅏ'의 'ㅑ'로의 축약을 겪으면서 '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되아

20) 외국인들이 저술한 19세기 후기의 한국어 관계 문헌을 검토한 백두현(1989=1992:95-96)은 19세기 후기의 '외'의 음가를 oy~we~ö라는 세 가지로 실현되는 변이를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21) 각 방언권의 방언형과 그 공시론적 기술에 대해서는 이진호(2002:134-142)를 참조. 현대국어에서, '되' 어간에 부사형 어미 '-아/어'가 결합한 활용형이 '돼'로 실현되는 것에 대해 행한 음운사적 관점에서의 설명과 공시적 기술 방법에 대한 연구사적 정리는 이혁화(2002:359-361)을 참조. 한편, 한영균(1991:252,262)는 '돼' 활용형을 '되' 어간 자체의 문제로 보아 어간이 '되'에서 '돼'로 재구조화되었다는 통시적 관점을 제시했으며 '되' 활용형을 설명하기 위해 복수기저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22) '되아(되야)'형은 '돼'형과 달리 공시적인 활용형 형성으로 생성될 수 있다. 그런데 '되야'의 존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되아'형에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반모음 y가 삽입된 활용형이 그 하나이고 oyšya로 음절화가 이루어진 후 통시적 변화를 겪은 활용형이 다른 하나이다.

(되아)와 '돼.' 방언형의 분화는 위 III.1.에서처럼 음절화로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oy\$а, 후자는 o\$ya로 음절화가 이루어진 후 통시적 변화를 겪은 결과가 오늘날의 방언형인 것이다.²³⁾

체계적인 관점에서 '뛰.'의 활용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세국어 '뛰.' 부사형 활용형의 각 시기별 어형은 유형적으로 위 '되.'의 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 말음어간의 활용형 '거어'의 축약형은 20세기 초에 보이기 시작한다.

- (10) 가. 꿩(뛰-, 사 5,14,16,110, 곽충구(1991=1994:295)에서 인용)
 나. 꿩서(뛰-, 사 10, 최명옥(1992:72)에서 인용)

'뛰.' 부사형 활용형의 현대국어 방언형은 크게 '뛰어'(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꿩:'(경기도 일부 지역과 강원도), '뛰:~띠:'(경상도)로 나눌 수 있다.²⁴⁾ '꿩:'은 y 유동현상을 보이던 uyə 연쇄가 u\$ya로 음절화가 이루어진 후 'ㄱ' '기' 변화를 겪은 어형이며 '뛰:~띠:'도 '꿩:'과 같은 음절화가 이루어진 후 'ㄱ' '기' 'ㅣ' 변화를 겪은 어형이다('띠:'는 반모음 w가 탈락한 어형).²⁵⁾

23) 위의 설명에는 몇 가지 가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중 'ㅈ'의 'ㅈ'로의 축약은 설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초성에 자음을 가지는 음절의 'ㅈ'나 'ㄱ'은 각각 'ㅈ'나 '기'로 축약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지만 어두에 자음이 없는 'ㅈ'나 'ㄱ'도 'ㅈ'와 '기'로 축약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인데, 이러한 축약이 오늘날 중부방언의 음운사에서 일반적인 음운변화의 과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해결책으로는 우선 '도야'가 일시적으로 '도ㅈ:(twya:)'('ㅈ'가 단모음화되기 전) 혹은 '되ㅈ:(tɥya:)'('ㅈ'가 단모음화된 이후)가 되는 1음절을 가정하면 '도ㅈ'나 '되ㅈ'의 'ㅈ'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ㅈ' 'ㅈ'를 상정할 수 있고 또 'ㅈ' 'ㅈ'의 과정이 흔하지 않은 중부방언이라 하더라도 'twya:'나 'tɥya:'에 있는 3중모음을 극복하기 위해 'ㅈ' 'ㅈ'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할 수는 있다. 'ㅈ'에 대해서는 이혁화(2002)를 참조.

24)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tɥa:'에 대해서는 이혁화(2002:355-357)을 참조.

25) '꿩:'형이 겪은 통시적 과정과 유사한 과정에 의해 재구조화된 어간으로 '꿩:'(醉)와 '꿩자:'(亡)가 있다. 김성규(1999:130)에서 언급한 '꿩:'(醉)는 '꿩(醉)하-'가 재구조화된 것으로 'ㅎ'이 탈락된 후의 '꿩(醉)하-'가 축약되어 나온 어간으로 생각된다. 서남방언과 동남방언의 '꿩:'(借) 역시 '꿩(取)하-'에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보았던 ‘되.’ 부사형 활용형과 ‘뛰.’ 부사형 활용형을 비교해 보자. ‘되.’와 ‘뛰.’의 부사형 활용형은 방언분포상 ‘되야’와 ‘뛰어’, ‘돼.’와 ‘뛴.’, 뛰:~따.’ 지역으로 나뉘지며 이들은 대체로 각각 겹친다.

IV. 결 론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반모음 y의 음절 구조적 지위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서 다른데 현대국어에서는 반모음이 중성의 한 구성성분으로서, 말 그대로 반모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반모음 y가 중성의 한 구성성분이라 보기는 어렵고 특히 모음 사이의 y는 앞뒤 어느 음절에도 속하지 않아 음절 구조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려운 존재이다(II장). ‘꽤기’의 현대국어 방언형은 중세국어의 ‘쇠야기’가 반모음 y의 음절화, 경음화, ‘ㅈ’ ‘ㅉ’의 모음 축약, 활음화 등을 겪은 어형이다(III.1.). ‘되.’의 활용형 ‘돼.’는 중세국어 혹은 근대국어 시기의 ‘되.’의 활용형인 ‘되야’의 후대형일 가능성이 있고, ‘되야’ ‘돼.’의 변화에는 y의 음절화, ‘ㅈ’ ‘ㅉ’의 모음 축약, 활음화 등의 통시적 과정이 개입되어 있다(III.2.).

본고에서는 국어의 음절구조와 반모음 y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너무 소략하고 또한 치밀하지 못한 논의여서 국어의 음절구조와 중세국어 oya 연쇄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미흡한 점과는 별도로 국어의 음절구조를 평판적(삼분지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한 점, 현대국어의 유일한 하향 이중모음인 ‘의’를 논외로 한 점, 반모음 w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던 점, 통시적 산물로서의 활용형 상정, ‘ㅈ’ ‘ㅉ’ 상정 등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보기에 따라서는 본고의 논의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점들은 앞으로의 논의에서 극복하도록 하겠다.

속어 ‘돼지’(亡)의 ‘돼’도 ‘뛰어’ 정도의 형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 나오는 ‘뛰여져도’(박 372, 최전승(1987=1995:368)에서 인용)가 참고가 된다.

참고논저

- 강창석(1984), 「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운규칙」, 『국어학』 13, 국어학회, 탑출판사, 199-228면.
- 강창석(1990), 「음절」,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동아출판사, 109-117면.
- 곽충구(1980), 「십팔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43,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 곽충구(1991=1994), 『합북 육진방언의 음운론-20세기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문헌자료에 의한-』, 『국어학총서』 20, 국어학회, 태학사.
- 곽충구(1997), 「음절의 변화」, 『국어사연구』, 국어사연구회, 태학사, 387-421면.
- 김남미(1997),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관한 연구-음절구조 조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규(1999), 「빠른 발화음에서 음절 수 줄이기」, 『애산학보』 23, 애산학회, 109-137면.
- 김옥화(1994), 「고창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연구』 121,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 김완진(1964=1971),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해석」,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45-64면.
- 김주필(1999), 「국어의 음절 내부 구조와 음운 현상」, 『애산학보』 23, 애산학회, 45-72면.
-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종희(2001), 「오름 활음(onglide)의 음절 내부 위치」, 『언어』 26-4, 한국언어학회, 715-733면.
- 배주채(1996), 『국어음운론개설』, 신구문화사.
- 백두현(1989=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국어학총서』 19, 국어학회, 태학사.
- 송철의(1987), 「15세기 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 16, 국어학회, 탑출판사, 325-360면.
- 송철의(1995), 「국어의 활음화와 관련된 몇 문제」, 『단국어문논집』 1, 단국대학교 단국어문연구회, 269-292면.
- 신승용(1998), 「음절화와 활음(/y/, /w/)의 음운론적 성격에 관하여」, 『서강어

- 문』 14,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1-52면.
- 이기문(1977), 『국어음운사연구』, 『국어학총서』 3, 국어학회, 탑출판사.
- 이병근·정인호(1999), 『중국 조선어 방언 조사-원평북방언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75면.
- 이상신(1998), 「VyV 연쇄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국어연구』 155,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 이승녕(1940), 「r·음고」, 『진단학보』 12, 진단학회, 1-106면.
- 이승재(1996), 「ㄱ 약화·탈락의 통시적 고찰」, 『국어학』 28, 국어학회, 태학사, 49-79면.
- 이진호(2002), 「음운 교체 양상의 변화와 공시론적 기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혁화(2002), 「국어 반모음 'ㄱ'의 음성학과 음운론」, 『어학연구』 38-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339-364면.
- 이현희(1991), 「중세국어의 합성어와 음운론적인 정보」, 『석정 이승욱선생 화갑기념논총』, 석정 이승욱선생 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315-333면.
- 최명옥(1992), 「19세기 후기국어의 연구-(모음음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55-90면.
- 최전승(1987=1995), 「이중모음 '외', '위'의 단모음화 과정과 모음체계의 변화」, 『한국어 방언사 연구』, 태학사, 359-395면.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I-IX,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영균(1991), 「모음체계의 재정립과 현대국어의 비음절화」, 『진단학보』 71·72, 진단학회, 249-264면.